

‘얼어붙은 시장·부상 이력’...나성범 MLB행 좌절 이유

2019년 무릎 부상·30대의 나이 걸림돌

코로나19로 MLB 구단들 재정 상태도 악화

나성범(32)이 메이저리그(MLB) 진출의 꿈을 이루지 못한채 NC 다이노스로 돌아오게 됐다. 2019시즌을 일찌감치 접게 했던 무릎 부상과 적지 않은 나이, 얼어붙은 메이저리그 시장이 걸림돌이었다.

2020시즌을 마친 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에 도전한 나성범은 MLB 구단들과 협상 마감 시간인 10일 오전 7시(한국시간)까지 계약을 맺지 못했다.

NC 구단 관계자는 “나성범측으로부터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전했다.

나성범은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를 등에 업고 MLB 진출을 추진했으나 끝내 뜻을 이루지 못했다.

나성범은 2019년 5월 경기에서 주루 도중 오른쪽 무릎을 크게 다쳤다. 전방십자인대 파열과 연골관 부분 파열 등으로 인해 시즌을 일찌감치 접었다. 이 부상으로 인해 2019시즌이 끝난 뒤 추진하려던 MLB 진출도 1년 뒤로 미뤄졌다.

2020시즌 나성범은 타율 0.324 34홈런 112타점을 기록하며 부상을 털

어낸 모습을 보였으나 주루에서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올 시즌 나성범은 도루 3개에 그쳤다. 부상 부담으로 인해 시도 자체가 적었다.

수비 범위도 예년과 비교해 크게 줄었다. 또 파워를 갖추고 있으나 삼진율이 높은 것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보라스는 MLB 구단들에 나성범이 ‘5툴 플레이어’라고 홍보했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MLB 구단들은 나성범에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다.

만 32세의 적지 않은 나이도 나성범의 발목을 잡았다.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4+1년, 최대 3900만달러에 계약한 김하성(26)이 ‘젊고 유망한 내야수’로 북수 구단의 관심을 받은 것과 대조적이었다.

MLB 이적 소식을 주로 다루는 MLB 트레이드머스는 “2019년 당한 무릎 부상과 그의 나이는 나성범에 대한 시장 상황을 다소 복잡하게 만들었다”며 “파워를 갖추고 있으나 삼진과 볼넷 비율은 나성범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전했다.

시기도 나성범의 편이 아니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MLB의 2020시즌 정규리그는 팀당 60경기로 대폭 축소됐고, 무관중으로 경기를 치렀다. 입장 수입이 전무했던 MLB 구단들은 재정이 크게 악화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트레이더 바워, 조지 스프링어, J.T.리얼무도, DJ 르메이유 등 대어급 자유계약선수(FA)의 계약 소식도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포스팅 시스템을 통해 MLB 도전에 나선 일본 선수들도 모두 고베를 마쳤다.

높은 출루율과 빠른 발이 강점이었던 일본인 외야수 니시카와 하루키는 협상 마감 시간인 3일 오전 7시까지 계약하지 못했다.

대어급 선발 투수로 분류된 스가노 도모유키는 여러 MLB 구단의 제안을 받았으나 제시받은 조건이 모두 기대를 밑돌아 원 소속팀 요미우리 자이언츠 복귀를 택했다.

잔뜩 얼어붙은 시장이지만, ‘협상의 귀재’인 보라스에 기대를 걸었다. 보라스는 게릿 홀, 브라이스 하퍼 등의 대형 계약을 이끌어낸 인물이다.

보라스는 한국인 메이저리거의 대형 계약도 성사시켰다. 박찬호가 2001년 텍사스 레인저스와 5년 6500만달러에, 추신수가 2013년 텍사스와 7년 1억3000만달러에 계약할 때 에이전트가 보라스였다. 또 보라스를 에이전트



로 내세운 류현진은 2019시즌을 마친 뒤 토론토 블루제이스와 4년 8000만달러에 계약했다.

그러나 보라스도 FA 시장의 한파를 이겨내지는 못했다.

MLB 트레이드머스는 “이번 오프 시즌 시장 상황은 힘겨보이고, 나성범이 구단들의 관심을 끌기에 불확실

한 부분이 많았다. FA 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30일의 포스팅 기간도 불리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근 스가노 사례에서 봤듯 예상보다 더 심각한 재정 상황을 마주한 해외 스타는 나성범 뿐만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나성범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메이

저리그에 도전할 수 있어서 기뻐다.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지만 큰 미련은 없다”며 “다른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나성범은 2021시즌을 마치면 FA 자격을 얻어 다시 MLB에 도전할 수 있다.

서선욱기자

선수 꿈 못 이룬 것은 아쉽지만...NC ‘1강’ 전력 유지

나성범 ‘이제 팀 우승 위해 최선을 다할 것’



메이저리그(MLB) 진출을 노리던 나성범의 목표가 벽에 부딪혔다. 나성범 개인에게는 아쉬운 일이지만, 지난해 장단 첫 통합 우승을 차지한 NC 다이노스는 패권 사수의 밀그림을 완성했다.

포스팅 시스템으로 MLB행을 추진했던 나성범은 협상 마감 시간인 10일 오전 7시(한국시간)까지 계약을 맺지 못했다.

나성범은 ‘슈퍼 에이전트’ 스콧 보라스를 등에 업고 오랜 꿈인 MLB의 문을 노크했지만 뜻을 이루는데 실패했다. 몇몇 구단들이 나성범에게 관심

을 보인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지만 실제 계약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만 32세라는 적지 않은 나이와 무릎 부상으로 수술대에 올랐다는 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수로 MLB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것이 나성범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NC 입장에서 보면 썩 나쁜 시나리오는 아니다.

NC가 처음 1군에 뛰어난 2013년부터 나성범은 8시즌 통산 타율 0.317 179홈런 729타점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타율 0.324 34홈런 112타점으로 NC에 첫 한국시리즈 우승 트로피를 안겼다. 나성범이 MLB에 진출했다면 NC는 30홈런 이상 가능 타자를 대체해야 한다는 풀기 힘든 고민과 맞닥뜨려야

했지만, 이제는 불필요한 일이 됐다.

경쟁팀들의 겨울을 보면 NC 풍족해 보인다. 지난 시즌 가을야구 경험 팀 중 LG 트윈스 정도만 큰 전력 누수가 없을 뿐, 나머지 팀들은 모두 채워야 할 공백이 생겼다.

NC의 한국시리즈 파트너였던 두산 베어스는 주전 내야수 오재일(삼성 라이온즈)과 최주환(SK 와이번스)을 잃었다. 라울 알칸타라(한신 타이거즈)-크리스 플렉센(시애틀 매리너스)의 리그 최강 외인 원투 펀치도 해체됐다.

3위 KT 위즈는 MVP 타자 멜 로하스 주니어(한신 타이거즈)를 놓쳤고, 정규시즌 동안 가장 NC의 아성에 가까이 다가섰던 카움 히어로즈는 30홈런-100타점짜리 유격수 김하성(샌디

에이고 파드리스)이 빠졌다.

반면 NC는 외국인 투수 드류 루친스키와 외야수 애런 알테어를 모두 붙잡았다. 무릎이 좋지 않아 애를 먹었던 마이크 라이트의 대체 선수 물색 작업도 진행 중이다. 여기에 가장 큰 변수였던 나성범의 잔류까지 확정되면서 또 한 번의 영광을 위한 퍼즐을 맞췄다. 나성범은 개인적 아쉬움을 뒤로 한 채 팀의 우승을 위해 뛰겠다고 다짐했다.

나성범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MLB에 도전할 수 있어서 기뻐다.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지만 큰 미련은 없다”면서 “도전을 도와준 구단과 같이 기다려주고 응원해준 팬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김미희기자

‘캡틴 KI’ 기성용, 2021시즌 FC서울 주장 선임

프로축구 FC서울의 2021시즌 주장으로 기성용(32)이 선임됐다.

서울은 9일 구단 인스타그램을 통해 “기성용이 2021시즌 서울 선수단을 이끌어갈 주장으로 선임됐다. 팬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 부탁드립니다”라고 발표했다.

축구대표팀 시절에도 주장을 맡았던 기성용은 대표팀 은퇴 후 서울에서 ‘캡틴’ 역할을 이어가게 됐다.

지난해 유럽 생활을 정리하고 11년 만에 전정팀 서울로 복귀한 기

성용은 새 시즌 주장 완장을 차고 팀 부활에 앞장서게 됐다.

서울은 이번 시즌 박진섭 선임 감독 체제에서 새 시즌을 준비 중이다.

기성용은 지난 4일 서울의 새해 첫 훈련을 앞두고 “2020년을 힘썼다. 부상이 많아 팀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두 달 동안 완벽하게 치료했고, 시즌 개막까지 남은 기간 100% 몸상태를 만들 것”이라며 각오를 밝혔다.

한편 서울의 부주장은 추후 발표



할 예정이다. 김민정기자

DF 최효진, ‘플레이팅 코치’로 2021시즌 전남과 함께 한다

전남드래곤즈가 ‘베테랑’ DF 최효진과 플레이 코치로 계약했다.

최효진은 2005년 인천유나이티드에 입단, 주전으로 활약하며 2007년 포항스틸러스로 이적했다.

빠른 속도를 바탕으로 한 공격적인 오프라잉과 뛰어난 대인수비 능력으로 국가대표 원배로 성장했고, A매치 통산 18경기 1득점을 기록했다.

포항스틸러스(2007~09)와 FC서울(2010~14)에서 전성기를 보낸 최효진은 2015년 전남드래곤즈로 이적 후 지난 시즌까지 6년 동안 활약하며 전남 소속으로 134경기 6득점 11도움을 기록했다.

K리그 통산 400경기 출전의 대기록을 달성한 그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경험에서 나오는 경기조율 능력을 보여 주며 2020시즌에도 리그 14경기에 출전해 젊은 후배들에 전혀 밀리지 않는 ‘베테랑’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프로 커리어 대부분을 주전으로 보낸 최효진은 2005년 프로 데뷔부터 2020년까지 꾸준히 활약하며 16년 연속 ‘두 자릿수 출전’이라는 대기록 또한 달성하였다.

전남은 최효진이 39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준수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 선수들에게 조언하며 코치로서의 역할도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



K리그 외국인 최다골 데얀, 홍콩 키치 이적

프로축구 K리그 외국인 선수 역대 최다골 주인공인 ‘레전드’ 데얀(40·몬테네그로)이 대구FC를 떠나 홍콩 프리미어리그 키치SC로 이적했다.

키치 구단은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데얀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데얀은 이달 말 팀에 합류해 내달 초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몬테네그로 출신으로 2007년 인천 유나이티드에서 K리그 무대에 데뷔한 데얀은 이후 FC서울, 수원 삼성, 대구 등을 거치며 K리그 역대 최고의 외국인 선수란 평가를 받았다.

전성기로 꼽히는 서울 시절에는 2011~2013년까지 K리그 최초 3시즌 연속 득점왕을 차지했고, 2012년엔 시즌 최우수선수(MVP)까지 거머쥐었다. 데얀은 K리그에서 12시즌 동안 활약하며 380경기에 출전해 198골 48도움을 올렸다. 외국인 선수 역대 최다 출전과 최다골을 모두 보유한 레전드다. 더 많은 경기 출전을 위해 새로운 팀을 찾다 홍콩 무대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김미희기자

전남 ‘검증 완료’ GK 오찬식과 3년 재계약



전남 여수가 고향인 오찬식은 광운

대 재학 중 2020 전남드래곤즈 공개 테스트에서 최종 선발되어 입단했다.

‘신인’ 오찬식은 FA컵 2R 충주시민축구단과의 경기에서 프로팀 데뷔전을 치렀다. 리그에서는 백업 골키퍼 자리를 지키다 10월 주전 GK 박준혁의 부상으로 인해 선발 출전 기회를 잡았다. 25R 대전하나시티브, 26R 안산그리너스, 27R 서울이랜드 3경기에 출전한 그는 멋진 선방을 보여주며 단 3실점만을 허용, 준수한 활약을 보여줬다.

오찬식의 발전 가능성을 본 전남은 그에게 3년 재계약을 제시했다. 오찬식도 자신을 선발하고 프로무대에 서

게 해준 구단에 감사하며 계약서에 서명을 완료했다.

재계약을 마친 오찬식은 “입단할 때 1년 계약을 하고 와서 정말 열심히 했다. GK가 출전이 쉽지 않은 포지션이라 데뷔를 하게 될 줄 몰랐는데, 데뷔를 하고 4경기나 출전해서 기분이 좋았다. 여수가 고향이라 어릴 적부터 전남드래곤즈를 고향팀이라 생각했는데, 출전 기회도 주시고 이어 재계약을 제안해 주셔서 감사하다. 올해도 열심히 해서 좋은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기자